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7호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칼럼

초등학교 시름부 부장교사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소고

천종문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산청초등학교 교사

김양희 기자의 스포츠읽기

학생의 '운동권'은 기본권이 아닌가요

김양희 한겨레 기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진로변경 학생선수 돕는다.. 교육부,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도연 연합뉴스 기자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

김영신 메디컬월드뉴스 기자

제주도 테니스 학생 선수단 실격

소년체전 테니스 제주선수들 실격때 논란... 결국 경찰 수사

고상현 노컷뉴스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울산시체육회장에 과태료 부과

안정섭 뉴시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초등학교 씨름부 부장교사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소고

천종문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산청초등학교 교사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022년 5월 28일에서 31일까지(4일간)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20년 미개최, 2021년 종목단체별 주관 대회로 진행되어 학생선수를 비롯해 지도자, 학부모 등 많은 이에게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는 2년이라는 공백을 땀으로 메워왔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현재 초등학교 씨름부 부장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현장에서 호흡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운동부(씨름부)의 현황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학교 현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매년 교육부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22년에는 주요 추진 과제를 4가지로 설정했다. 이 중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과 '교원 및 체육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등 2가지 과제가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지침이다.

먼저,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과제는 학습권 보호제도 기반 강화,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확대,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대응 강화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가 5일로 축소되었고, '최저학력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 성적이 50% 이상 도달하게 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기마다 최저학력제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대회 참가를 허용하게 하고 있다. 한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연 2회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당 월 1회의 상담 실시 및 일지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종목별 협회에도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한씨름협회는 대회참가 시 2021년까지 출석인정결석 일수와 최저학력제만 점검하였으나, 2022년에는 학교폭력조치 처분이력까지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체육지도자 전문 역량 강화' 과제는 전문 직무교육과 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등을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전문 직무교육은 신규 지도자는 15시간, 보수교육자는 16시간 연수에 참여하게 하여, 지도자의 자질 및 스포츠 전문성을 함양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 내 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폭력예방 및 인권교육을 2년 주기로 재교육하고 있다.

둘째,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남교육청은 초·중학교 학교운동부를 '중점스포츠클럽'과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점스포츠클럽은 예전의 독립된 운동부 개념(학생선수반)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형태(학생취미반)로 확대하는 것으로,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취미를 가진 일반학생, 타학교 학생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권 보장으로 경쟁력 있는 학생선수 육성과 잠재적 학생선수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형스포츠클럽은 흔히 말하는 지역형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과 유사한 개념으로 축구와 야구 종목에서 운영되어 지역화를 통한 저변 확대와 선진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 장학사의 업무중 하나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별도로 설정할 만큼 학교운동부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장 계속



셋째,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정책과 현장의 괴리이다. 대표적으로, 학교운동부가 경험한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일수' 축소와 관련된 씨름부 운영의 어려움이다. 2021년 11월, 대한체육회는 2022년 초등학교 출석인정결석 인수를 '0일'로 발표하고, 종목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강한 반대로 인해 다시 '5일'로 확대되었고, 학교운동부는 이에 근거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문제는 씨름과 같은 체급종목은 체중 조절과 이를 회복하는 시간이 소요되며, 통상적으로 계체일은 대회 하루 전에 실시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씨름대회는 7체급의 개인전과 7전 4선승제의 단체전으로 진행되는데, 하루 만에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한 초등학교 씨름부가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박 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된다. 2022년도는 상대적으로 출석인정결석 일수가 많은 중·고등학교부의 배려에 따라 일부 대회에서 초등학생부는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대회 일정을 배정받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일수를 0일로 조정한다는 정책은 체급종목을 비롯한 학교운동부의 현실을 고려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어, 비인기종목인 씨름의 대회 운영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교운동부 선진화 정책의 대안으로 주말리그, 권역별 대회, 방학기간 중 대회 운영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씨름과 같은 비인기종목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체육인이 참가하는 전국규모의 씨름대회는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와 여자부 등이 7~8일 간의 일정을 유기적으로 소화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모래판 조성 및 경기장 확보 등 경제적인 면과 대회 운영진 및 심판진 등 인적 자원 모집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인기종목은 지역 내 제한된 학교운동부 수로 인해 권역별대회의 경쟁력 또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전국규모 대회 참가하면서 학생선수의 기량을 펼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씨름과 같은 비인기 종목의 대회 일정과 준비 과정 드움을 고려한다면, 대회 운영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필자의 제안이다. 먼저, 학교운동부에 대한 이해와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엘리트 정책으로 대표되는 학교운동부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학생선수와 학부모는 새로 유입된 인력으로, 학교운동부의 정보는 학생선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민적 캠페인과 다양한 시각에서의 정보제공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정책 실행과 더불어 대안 제시가 병행된 상황에서의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기술했듯이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일수'가 일으킨 현장의 혼란을 생각한다면 이 주장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학생선수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학습권 보장, 인권의식 형성 등 올바른 학교운동부 문화의 기초를 닦을 필요가 있다. 또한, 씨름과 같은 비인기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도성장기 시기의 엘리트 체육정책이 양산한 학교운동부의 부족한 점을 인식 개선과 절차적 보완을 통해 선진형 학교운동부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학생의 '운동권'은 기본권이 아닌가요

초등학교 6학년 딸은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학교 체육 시간에 족구를 했단다. 그러면서 “우리 B조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겼어!”라며 신났다. 다음날에는 럭비를 할 것이라며 “A조는 진짜 (개)사기야. 공 다 주고받은 다음 옆을 보면 A조 애들은 다 끝내고 자리에 앉아 놓고 있어”라고 구시렁댔다. A조에는 반에서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 있다고 했다. “그런데 C조에는 반장만 잘하는데 개는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인대를 다쳤다는 데도 혼자 펄펄 날아다녀.” 아이의 말은 끊이지 않았다.

딸은 체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체육 시간이 있는 날 아침이면 “오늘도 분명 족구를 할 거야”라면서 투덜댄다. 그런데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그날 체육 시간에 관해서만 얘기한다. 국어, 수학, 영어 등의 수업을 물으면 “괜찮았어”라고 단답형으로만 답한다.

체육이란 게 그렇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두게 한다. 교실 책상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의 뒤통수만 보다가 운동장(혹은 체육관)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나오면 오롯이 반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족구를 하든, 럭비를 하든 타인의 손끝, 발끝에 집중하게 된다. 세상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며 승패의 의미 또한 돌아보게 된다. 세상에는 절대 ‘글’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게 있다.

팀 스포츠가 아이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이로울 수 있는지 조사 발표된 최근 논문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매트 호프만 운동학 박사 등이 6월 초 <플로스 원> 저널 온라인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농구, 축구 등 팀 스포츠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불안, 우울증, 사회성 및 주의력 결핍 징후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만1000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9~13살)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됐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팀 스포츠를 한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와 비교해 불안 지수가 10%, 사회성 결핍 지수가 17%, 우울증 지수가 19% 낮았다. 흥미롭게도 팀 스포츠가 아닌 개인 스포츠를 하는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불안 지수 등이 더 높게 나왔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의 줄리언 라고이 정신의학과 박사는 이에 대해 “팀 스포츠가 아이들에게 주는 이점 중 하나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팀)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팀이 이기거나 지거나 다른 이들과 공유하게 되니까 패배의 감정을 더 견딜 수 있고, 승리의 감정을 더 즐길 수 있다”고 해석했다. 스포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서 팀 스포츠를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학교, 그리고 학교 체육 시간이다.

‘학생 선수(엘리트 선수)는 학생인가, 선수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학습권’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간과된 게 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주장하면서 비 학생 선수(일반 학생)의 ‘운동권’은 외면한다. 운동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아닌 것일까.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빈곤이 심화하는 가운데 현재 주당 2시간뿐인 고등학교 체육 시간마저 축소 움직임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진로 변경 학생선수 돕는다... 교육부,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2022.07.11



신청 대상

- ① 중, 고등학교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 학부모
- ②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 경력이 있는 자
- ③ 학생선수 전형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상담 내용

- ① 지역별 학생선수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 ② 맞춤형 진로 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지원

[비대면] 1:1 상담

- ① 신청 기간
2022년 5월 23일 (월) ~ 7월 20일 (수)
- ② 상담 일정
1차 7/9 (수) ~ 7/10 (목) 10:00 ~ 17:00
2차 7/16 (수) ~ 7/17 (목) 10:00 ~ 17:00
3차 7/23 (수) ~ 7/24 (목) 10:00 ~ 17:00
학교체육포털 (cspep.or.kr) 공지사항 참조
- ③ 기타 사항
1인 1회 최대 40분 상담 진행
예약 완료 후, 개별 문자 발송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 ① 신청 기간
2022년 5월 23일 (월) ~ 6월 10일 (금)
- ② 사업 일시
2022년 7월 1일 (수) ~ 7월 16일 (수)
- ③ 상담 내용
- 학생선수 진로·진학 특강
- 참가자 특성별 모둠별 또는 개별 상담
- 체육 계열 전형 분석, 지원 전략, 다양한 진로 사례 소개 등
- 학교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특강 지원

게시판 상담

- ① 신청 기간
2022년 5월 23일 (월) ~ 연강 상시
- ② 상담 방법
- 회원 가입 후 상담 문의 글 작성
- 상담 내용 답변 (신청 후 1~3일 내)

QR코드 확인

문의 : 학교체육진흥회 (070-4286-2120 / cspep.or.kr)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는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 선수와 부상이나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진로를 중도에 변경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여러 스포츠 분야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1천600명으로 대폭 늘리고 1대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상담 등을 운영한다.

학생 선수 진로·진학 상담 지원 대상은 2019년 100여 명, 2020년 200여 명, 지난해 300여 명에서 올해 1천6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생 선수, 진로 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320여 명을 대상으로 1대 1로 여러 진로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체육 관련 계열의 대학 진학 상담 등을 해준다.

1대1 상담은 오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학교체육포털'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개요 >

구분	1: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
대상/인원	중1~고3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및 학부모/320여 명	전국 체육고등학교 중 희망교/500여 명
내용	체육분야 진로·직업 안내 체육계열 전형 분석 및 진로 사례 소개	학생선수 진로·진학 특강, 체육계열 전형 분석 및 지원전략 등
방법	(비대면) 최대 40분간 1:1 상담	(대면) 진로특강, 모둠별 또는 개별 상담
일정	2022.7.9.(토) ~ 7.24.(일) 까지 매주 토, 일요일	2022.7.7.(목) ~ 7.15.(금) 학교별 일정

찾아가는 학생 선수 진로·진학 상담은 사전 신청한 광주체고, 울산스포츠과학고, 강원체고, 충남체고 등에서 학생 선수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직교사 등으로 이뤄진 14명의 진로상담지원단이 직접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는 진로상담지원단 인력자원을 올해 14명에서 내년 30명, 2024년 50명, 2025년 100명까지 늘리고 찾아가는 학생 선수 상담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체육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부를 운영 중인 일반 학교에서도 찾아가는 진로 상담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

교육부가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4주간 폭력피해 실태 조사를 한다.

이번 폭력피해 실태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선수 등록 후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되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는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학생선수들은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코드)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 참여하면 된다.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안내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은 “이번 조사는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여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사 시기를 약 40일 앞당겼으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며,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실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문항을 4개 영역[개인배경(7문항), 목격경험(5문항), 피해경험(10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5문항)]으로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폭력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2020.12.15.)에 따라, 2021년부터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이다.

소년체전 테니스 제주선수들 실격패 논란... 결국 경찰 수사

올해 전국소년체전에 제주 대표로 출전했다가 실격패를 당한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단. 학부모들은 도테니스협회와 도체육회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테니스협회와 도체육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결국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진실은 수사 기관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당시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들이 고의 실격패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직후 학부모들이 "도테니스협회 관계자들이 선수들을 실격패 당하게 했다"며 문제 제기를 하자, 도체육회 스포츠공정감찰단은 조사를 벌였다. 최근 조사가 끝나자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감찰단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년 기다려온 전국소년체전...그날 무슨 일이?

취재진이 만난 학부모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첫 경기일인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55분 전북 팀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A 지도자는 출전선수 6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하지만 명단 제출 마감시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2분 전북 팀 지도자는 A 지도자의 선수명단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회 규정상 A 지도자가 대회 코치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터라 선수들이 직접 출전 선수명단을 제출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대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실격패를 당했다.

학부모들은 "도테니스협회 관계자는 대회에 앞서 감독자 대표 회의에 참석해 감독과 코치로 정식 등록된 이들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탈락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고의로 학부모와 A 지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대회 개최 한 달여 전부터 A 지도자를 중등부 코치로 선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도테니스협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불거졌던 도테니스협회 전 임원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제주를 대표해서 출전한 남자 중등부 선수들은 코치도 없이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당일 아침 임시방편으로 도체육회 측이 추가로 발급받은 임원 출입 카드를 A 지도자에게 전달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대회장 출입만 가능할 뿐 남자 중등부 선수단을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고의 실격패를 의심하는 이유는 그동안 도테니스협회 내 파벌 간 싸움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1년여 간 도테니스협회에서는 전 임원들이 아동학대와 보조금 횡령,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도테니스협회 뜻과 반대되는 상대편 코치에게 강습 받는다는 이유로 연습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결국 어른들의 싸움으로 2년 동안 대회 참가를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피땀 흘리며 훈련했던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억울하다" ...도테니스협회·도체육회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도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감독·코치진 명단을 전달할 때 도테니스협회 임원 중 한 명을 남중부 코치로 선발해 도체육회에 문서로 제출했다. 하지만 도체육회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그 임원을 여중부 코치로 변경했다"며 도체육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추가로 A 지도자를 코치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협회에 속한 코치가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 코치였다.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협회를 보더라도 개인 코치를 대회 코치로 배정하는 사례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감독과 코치로 정식 등록된 이들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대한체육회에서 도체육회에 전달한 내용이다. 우리는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말 억울하다. 사법 기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도체육회는 "도테니스협회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미등록 코치가 선수명단을 제출하면 실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자기네가 받아놓고 왜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대회 종목 책임자는 도테니스협회다. 책임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고의 실격패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달 21일 도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도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정관상 회원종목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안팎에서 각종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임원은 해임됐다. 앞으로 협회 운영은 도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가 맡는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울산시체육회장에 과태료 부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된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체육회 직원 2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김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고 "(직급을)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의 발언을 계속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진정인들에게 회신을 보내 "피진정인(김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피진정인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을 개선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체육회 간부 직원 1명도 김 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함께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이나 행동이 없었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인전법단, 청소년 테니스선수와 템플스테이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06>

“SSG, 정부 사업이라면서 왜 공문은 생략했나”... “학교 모르게 학생들 불렀다” [춘추 탐사]

<http://www.spoch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54>

"체육회를 강패집단 매도" ... 무안군-체육회 갈등 이유는?

<https://www.news1.kr/articles/?4734880>

울산지법, 체육회 채용면접 질문자료 유출 전 체육회 사무국장 '집유'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71109032033139a8c8bf58f_12

한미 등 서방 "러·벨라루스의 국제스포츠연맹 자격 정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6008800071?input=1195m>

구미혜당학교 농구 선수단, 전국대회 시상금으로 어려운 이웃 위한 기부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70716362292299>

광주 문화중 7명 농구 선수가 이룬 기적같은 승리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7033>

32년 전 '국민학생' 박용택 설득했던 최재호 감독 "야구하자고 매일 쫓아다녔지." [춘추 피플]

<http://www.spoch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27>

조세혁, 윈블던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식 우승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1_0001938077&cID=10808&pID=108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